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이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를 중심으로 -

김민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12,13차의 자료 분석을 통해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이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SPSS Statistics 버전 28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동기가 강할수록 학업 수행능력이 높아졌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학업동기 중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낮아진다.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수행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학업수행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 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 교육과정, 부모의 자녀 발달단계나 개인의 학업 발달 수준에 부합한 학업 자극 제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전환기 청소년, 학업수행 능력,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논문 투고일: 2025. 01. 31. 최종심사일: 2025. 03. 14. 게재확정일: 2025. 03. 26.

* 이 연구는 한남대학교 2024년도 교비학술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임.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Jung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E-mail: mjkim@hnu.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에게 있어서 학업수행 능력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 달성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는 35개국의 만 10세(초등 학교 5학년 기준) 아동을 대상으로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참여 대상국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31위로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행복도 순위가 낮은 이유로 ‘경쟁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발달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긴 학업 시간과 선행학습 등으로 인한 학업부담감과 학업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OhmyNews, 2024.8.5).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초기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동 개인의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류방란·김성식, 2006 ; 박창남·도종수, 2005).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의 가족 및 부모특성, 아동의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 뿐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아동의 정의적 요인이 학업수행 능력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이정림 · 권대훈, 2016). 학업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s) 학습자의 학습시 느끼는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학업에 임하는 태도, 학업동기와 같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정서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학업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 지속 여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아동의 학습관련 정의적 요인들과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의 의미에 근거하여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보고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을 다룬 연구들 가운데에는 적정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업 동기를 자극하고 학업 수행 능력과 성취도를 높인다는 학업스트레스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역할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강민지 · 강현아, 2023, 재인용; 김재엽 · 박하연 · 황선익, 2017; 채진영, 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중고 학생 10명 중 9명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학업경쟁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

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연령 또한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공영숙·임지영, 2021; 황매향, 2006; 허미경·김선길·도미향, 2024).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습자로 하여금 불안, 집중력 저하, 학업동기 감소를 초래하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시험 기간에 수면 부족,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업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박성희·변은경, 2022). 뿐만아니라 학업스트레스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 학생에서 학업중단 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하고 있다(강신영·문혁준, 2021; 김혜원·장윤옥, 2016; 성영실, 2021; 심현숙·박경빈, 2022; 양유연·정은지·최중진, 2020; 정영미, 2021; 지명원·이주연, 2022). 정주영(2010)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낮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경호와 김석우(2014)는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 수행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수행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오히려 학업동기 저하, 학업수행 능력저하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학업스트레스가 입시와 직결되는 중고생 시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 심각성이 부각될 정도로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강금주, 2022).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제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로의 입학이 가까이 둔 시기이자 생의 주기를 통해 볼 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전환기 청소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학업수행에 있어서 이 시기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 비하여 보다 더 고차적인 사고와 높은 수준의 학업수행을 요구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환기 청소년으로 하여금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엄선영·이강이, 201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놓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과의 관련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학교급별 특성에 비해 아직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학업수행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목받는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김희정 · 박관성, 2019; 송인섭 · 박성운, 2000; 홍윤경 · 최혜진, 2024). 학업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은 아동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motive)를 가지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학습자는 자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학업에 대해 잘 동기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환경에 맞게 통제 및 조절할 수 있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그 결과,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학업수행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아영, 2008; 임선아, 2013). 이렇듯 학업에 자율성을 가지고 임하는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학습노력을 기울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 결과 학업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반면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수동적인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학업수행 능력에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자율성이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정수 · 임선아, 2019). 자율성은 학업수행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학업수행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학업수행 능력에 의미있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이경혜, 2015). 특히, 본격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을 키워야 하는 전환기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초등고학년의 경우,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부여받고,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 시기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기에 아동의 자율성과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으로 아동의 학업동기를 들 수 있다. 학업동기는 학업과 관련한 다른 어떤 정의적 특성에 비해 학업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학업동기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로 학업행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학업수행 능력과 성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였다(김은영, 2008 ; 추헌택, 2012; 탁수연외, 2007; 한순미, 2004). 학업동기는 학습자들이 학업적 잇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으로서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 만족감 및 성취동기를 포함하므로 학업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업성취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안도희 · 이유정, 2010). 김아영(2008)은 학업동기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에 도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은 일반적으로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높은 실패내성을 지니고 있고, 이와 반대로 쉬운 과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

며,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학업동기는 학업수행 능력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업수행 능력에 학업동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동기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요인들이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독립변인으로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이들이 각각 학업수행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주로 중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 동기 각각의 개별변수가 학업수행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 동기 요인들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인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인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후 시기 이들의 학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 가운데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습동기가 전환

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PSKC(http://panel_kicce.re.kr))의 12차 년도(초 5학년), 13차 년도(초 6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은 직전 또는 이전 학년도의 정서적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에(신현중·김민정, 2024) 입각하여 전환기 청소년기인 초등 6학년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관련 정의적 변수로 초등 5학년 시기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자료를 활용한다. 종속변수인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은 13차 년도(초6 학년)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 점수의 합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 자율성, 학업동기는 12차 년도(초 5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초 5)~13차(초 6)차까지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결측값이 없는 자료를 추출하였다(단, 통제변수로 삼은 부모학력은 결측값이 있는 것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전체 2,150 사례 중 565개의 사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의 성별은 남아 284명(50.3%), 여아 281명(49.7%) 이었다. 부 학력은 고졸 이하가 159명(28.1%), 대졸이상 384명(68%), 모 학력은 고졸 이하가 158명(28%), 대졸이상 401명(71%)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 이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 능력은 학급 담임교사가 응답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차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전반 항목으로 구성하여 학업수행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의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하위 20% 이내(1) ~ 상위 20% 이내(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교과목에서 보이는 상대적 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 6의 학업수행 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975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학업스트레스

학교성적, 숙제나 시험, 공부 등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런적 없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학업스트레스 신뢰도 계수는 .766으로 나타났다. 예시 문항은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공부나 성적 등의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긴장이나 초조함, 걱정과 같은 정의적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율성

자율성은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와 같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1점)~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첫 번째 문항인 ‘나는 내 생활속에서 압박감에 시달린다’에 역코딩을 적용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율성 신뢰도 계수는 .688로 나타났다.

(3) 학업동기

한국아동 패널자료에서는 학업동기 측정을 위해 AMT 학업동기검사(Academic Motivation Test)를 김아영(200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동기 검사는 학생들의 학업에 관련된 동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 두 가지 동기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26문항, 학업적 실패내성 18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6점)’ 의 6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AMT학업동기 검사의 각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 데이터는 공개된 패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업동기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43 학업적 실패내성은 .768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 부모학력,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 성별

은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9; 김양분의, 2012; 한건수, 2023). 그 외 부모 학력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광혁, 2019; 김성식, 2019; 김진미,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전환기 청소년 학업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모형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모형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율성이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3모형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8(IBM Corp., Armonk, NY, USA)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전환기 청소년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습동기,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 관계

		1)	2)	3)	4)	5)
	학업수행능력 ¹⁾	-	-0.064	.124**	.274**	.187**
	학업스트레스 ²⁾		-	-.273**	-.419**	-.453
	자율성 ³⁾			-	.279**	.285**
학업	학업적자기효능감 ⁴⁾				-	.700**
동기	학업적실패내성 ⁵⁾					-

**p<.01

학업수행능력은 학업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율성 ($r=.124, p<.01$) 학업동기(학업적 자기효능감($r=.274, p<.01$), 학업적 실패내성($r=.187, 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학업 실패에 대한 내성이 높을수록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스트레스와 자율성($r=-.273, p<.01$),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419, p<.01$)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학업동기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과 학업동기(학업적 자기효능감($r=.274, p<.01$), 학업적 실패내성($r=.285, p<.01$))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성이 높을 수록 학업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에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 초등학교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β	SE	Standardized β	t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1모형	아동성별	0.264	0.083	0.136	3.200***	0.102	0.426
	부 학력	0.346	0.111	0.163	3.124**	0.128	0.563
	모 학력	0.142	0.114	0.066	1.249	-0.082	0.366
	가구월평균소득	0.050	0.046	0.048	1.089	-0.040	0.139
	학업스트레스	-0.089	0.042	-0.090	-2.115*	-0.171	-0.006
F=8.771, $R^2=0.079$, Adjusted $R^2=0.070$							
2모형	아동성별	0.255	0.082	0.132	3.103**	0.094	0.417
	부 학력	0.353	0.110	0.166	3.198***	0.136	0.569
	모 학력	0.134	0.114	0.062	1.185	-0.089	0.357
	가구월평균소득	0.041	0.046	0.039	0.891	-0.049	0.130
	학업스트레스	-0.058	0.044	-0.059	-1.326	-0.144	0.028
자율성	0.102	0.043	0.106	2.384*	0.018	0.187	
F=8.323, $R^2=0.089$, Adjusted $R^2=0.078$							
3모형	아동성별	0.287	0.080	0.148	3.590***	0.130	0.444
	부 학력	0.348	0.107	0.164	3.248**	0.137	0.558
	모 학력	0.116	0.110	0.054	1.055	-0.100	0.333
	가구월평균소득	0.020	0.044	0.019	0.450	-0.067	0.107
	학업스트레스	0.052	0.047	0.055	1.163	-0.038	0.147
	자율성	0.052	0.042	0.054	1.222	-0.032	0.344
	학업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0.225	0.060	0.225	3.740****	0.107
	학업적 실패내성	0.073	0.060	0.075	1.224	-0.044	0.191
F=11.104, $R^2=0.149$, Adjusted $R^2=0.135$							

*p<.05, **p<.01, ***p<.001, ****p<.0001

1단계 모형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면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9$, $p<.05$).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는 이후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율성이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학업수행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2$, $p<.05$). 3단계 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요인(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난바($\beta=0.225$, $p<.0001$). 학업 동기 중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관련 정의적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12, 13차년도)의 자료 분석을 통해 초등고학년 아동의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 전환기 청소년 학업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수행능력은 학업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학업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혜원·장운옥, 2016)결과들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학업수행 능력에 대해 학업스트레스 뿐아니라 다른 다양한 독립 변수들과의 구조적 관계나 본 연구와 다른 연구모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저소득층 비율이 적고 더욱이 결측값이 없는 사례를 추출했기 때문에 나타난 편향적인 표본집단 이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즉, 분석대상 아동들이 중산층 이상의 학생일 가능성이 커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학업수행 능력과 자율성, 학업동기는 이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학업동기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동기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결정 동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자율성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와 동기뿐만 아니라 학업성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업의 지속성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이창현·이은주, 2014; 최지혜, 2014).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율성 지지는 학업성취 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습에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학업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김명숙, 2010; 김아영, 2002; 2008). 이를 통해 학교와 부모는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학업동기 향상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자율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과 같은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 소진과 반감이 감소하는 반면(김희정·박관성, 2019; 박상우 외, 2021; 이민영 외, 2019),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학업에 대한 소진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를(양

혜원·남숙경, 2019)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습동기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적으로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적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임을 보고한 송인섭과 박성윤(2000)의 연구결과와 학업수행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학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습전략사용, 자기조절력과 같은 변수를 매개로 하여 학업수행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심층적 전략 및 상위인지 전략과 높은 상관을 가지며,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우연경, 2014; 한순미, 2004).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종단연구를 통해 밝힌 이전 학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이후 학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장태희 외, 2023; 전현정·정혜원, 2015; 정갑순 외, 2002).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인간의 정서적 측면은 일조일석에 형성되고 변화를 이루는 영역이 아니기에 학업성취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중고생 시기에 학업수행 능력 향상을 이루려면 그 이전 시기부터 학업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부모역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와 사회로 하여금 자녀의 선행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와 정부로 하여금 공교육을 포함한 사교육 현장에 가이드 라인 제시의 필요를 제공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업관련 정의적 특성에서 부정적 특성을 지닌 것을 감소시키려는 접근 즉, 예를 들어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려는 접근 보다는 오히려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 향상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과도한 선행학습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자극이 그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학업수행의 반복적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결과 자율성에 입각한 자기 주도 학습태도 형성을 방해하기 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되 개개인의 학업수준에 맞는 학습자극과 학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강신영·문혁준, 2021; 김민정, 2019; 김아영, 2008). 즉,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수행에서 성공 하는 경험의 기회를 많이 가져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업수행 능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문은식(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업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환경에서 교사와 또래 간의 지지를 통해서 학업 동기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전환기 청소년 시기에 이들에 대한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업 동기에 대한 지지를 촉진하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또래 학생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한 학업수행의 성공 경험 기회를 통해 또래 상호 간에도 서로 학업동기를 지지하며 학업할 수 있는 학급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강민지·강현아, 2023; 신현중·김민정, 2024). 특히 한국 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5학년생, 중학교 2학년생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오지혜·이수영, 2017). 이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노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특성인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실패내성)가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한국아동패널의 12, 13차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한 바, 다소 편향적인 표본 집단을 통해 나타난 결과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볼 때 분석대상 아동 청소년이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가능성이 커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고 해석하는 데 제한점과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다른 아동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 향상에 더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찰 변수들에 있어서도 아동의 학업과 관련한 정의적 특성 변수들을 보다 더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과 변수들 간의 효과와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가 학업수행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학업수행 능력에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드러난 결과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와 학업수행 평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무엇인가에 함의를 준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교육현장과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과정 마련과 학업목표 설정, 부모로서 자녀의 학업수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성취기대와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금주(202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2), 155-182.
- 강신영·문혁준(2021).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그림, 학업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31-443.
- 강민지·강현아(2023). 아동기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7(4), 715-731.
- 공영숙·임지영(202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림, 집행기능 곤란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 1-1
- 구경호·김석우(2014).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 김광혁(2019).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1-27.
- 김명숙(201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영어학습동기 탐색: 목표지향성, 학업정서 및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2), 335-360.
- 김민정(2019).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 및 학업수행 관련 변인들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화 추이. **한국가족복지학**, 24(4), 501- 518
- 김성식 (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가정 배경, 유아시기 교육경험, 학생- 교사관계 변인의 영향. **초등교육연구**, 32(1), 15-36.
- 김아영(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아영(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95-123.
- 김양분·임현정·김난옥.(2012). 학업성취에 대한 학급 및 교사 요인의 영향. **한국교육**, 39(2), 157-179.
- 김은영(2008). 여자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동기조절전략 연구. **교육심리연구**, 39(1), 95-123.
- 김재엽·박하연·황선익(2017).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1), 53-78.
- 김정수·임선아(2019). 학업적 자기손상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3(1), 77-100.
- 김진미(2019). 학교준비도가 취학 이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111-1130.
- 김혜원·장윤옥(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학습참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99-117.
- 김희정·박관성(2019). 고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211-229.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 격차: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의 영향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은식(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적 환경, 동기적 신념, 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4), 25-43.
- 박상우·박희웅·이수란(202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업소진의 관계: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3), 399-423.
- 박성희·변은경(2022). 간호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8(4), 99-106.
- 박창남·도중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성영실(2021). 유아의 학교준비도, 학업능력,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37(2), 567-587.
- 송인섭·박성윤(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29-64.
- 신현중·김민정(2024). 초등저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8(2), 167-187.
- 심현숙·박경빈(2022).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취학 후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215-237.
- 안도희·이유정(201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4), 2117-2133.
- 양유연·정은지·최중진(2020). 초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관계에서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215-237.
- 양혜원·남숙경(2019).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불만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일상적 스트레스와 투지(Grit)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2), 71-92.
- 오지혜·이수영(2017). 교사의 교수역량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초등교육**, 28(4), 179-200.
- 엄선영·이강이(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 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4(3), 89-100.
- 우연경(2014).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용가치와 지속성 및 학업성취의 관계 - 상황적 흥미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8(3), 405-420.
- 이경혜(2015).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업수행능력에 부모-자녀 활동 및 자율적 행동역량이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비교분석. **아동교육**, 24(3), 45-63.
- 이민영·엄정호·이경주·이상은·이상민(2019). 학업반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심리적 영향요인 분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89-110.
- 이정립·권대훈(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723-734
- 이창현·이은주(201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정서 및 학업성취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4), 157-177.
- 임선아(2013).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중단적 구조관계 검증. **아동과 권리**, 17(2), 229-247.

- 장태희 · 황주현 · 박정희 · 한우석(2023). 대학생의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9(6), 509-517.
- 전현정 · 정혜원(2015). 중학생의 시험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47-274.
- 정갑순 · 박영신 · 김의철(2022). 한국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 효능감과 성취 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정영미(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12(1), 2777-2789.
- 정주영(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1), 129-152.
- 지명원 · 이주연(2022).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20(2), 1-16.
- 채진영(201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 71-87.
- 최지혜(2014). 성취정서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 확인. **한국교육학연구**, 20(1), 125-140.
- 추헌택(2012). 대학생용 학업참여 척도(UWES-S)의 타당화: 학업동기, 참여 및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85-503.
- 탁수연 · 박영신 · 김의철(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한건수(2023).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및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및 학업동기의 차이분석. **문화와 융합**, 45(4), 847-857.
- 한국아동패널(PSKC). 아동패널조사 12th~13th(2019-2020). <http://panel.kicce.re.kr>
- 한순미(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황매향(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허미경 · 김선길 · 도미향(2024). 청소년의 코칭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1(2), 97-116.
- 홍윤경 · 최혜진(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www.ohmynews.com, 2024, 8월 5일자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Abstract

The Impact of Academic-Related Affective Factors on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in Transitional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utonomy, and Academic Motivation

Kim, Min-Jung*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academic-related affective factors in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of transitional adolescent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2th and 13th wave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o achieve th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8.0.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er autonomy and stronger academic motivation are associated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Conversely, higher academic stress reduces academic self-efficacy, a key component of autonomy and academic motivation. Additionally, greater autonomy leads to increased academic motivation. Secon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was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academic stres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performanc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empirically verifies not o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utonomy,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but also identifies the most explanatory factor among them.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ies, curricula, and parental support tailored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and individual academic growth, ultimately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of transitional adolescents.

Keywords : transitional adolescent,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academic stress, autonomy,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iency

* Hannam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professor